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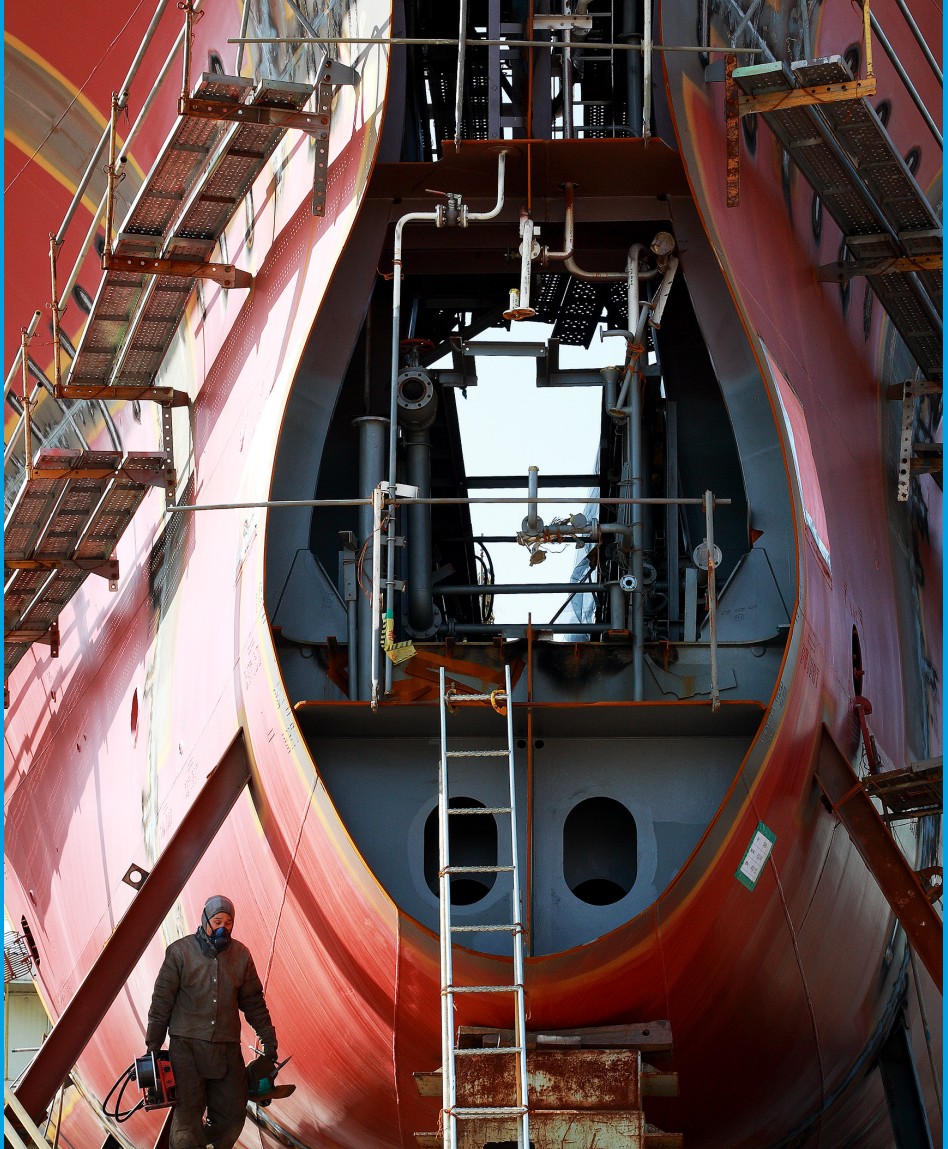
바지락

바쁜 출근, 지친 퇴근, 즐겁게 바꾸자

2023년 8-9월호

- 2, 3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자대표'
- 4, 5면 모두가 함께해 모두가 행복한, '대한솔루션지회'
- 6면 금속노조, 공동휴게실·작업복세탁소 설치 요구
- 7면 QR코드 활용 꿀팁
- 8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을

* 제호 글씨 디자인 : 최진숙 금속노조 조합원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자대표'

노동자 개인이 사업주에게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견을 어렵게 제기해도 받아들일지는 사용자 생각에 달렸습니다. 노동자 개인은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찍히거나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권력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노동조건을 악화하려면 노동자 의견을 듣게 하고, 심각한 사안은 동의받고 문서로 남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노동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역할 중 하나가 근로자대표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한 대표 사례는 ▲특정일 휴무 대신 연차 사용(연차 유급휴가 대체) ▲공휴일 근무 대신 다른 날 대체 휴무(공휴일 휴일 대체) ▲연장·야간·휴일노동 보상 수당 대신 휴가(보상휴가제) 등입니다. 만약 내 의사를 묻지 않고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가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서면 합의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3명 중 2명, 근로자대표 없거나 존재조차 몰라

문제는 근로자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선출 절차, 방법, 임기, 권한에 대한 기준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전국 5,733명의 시민·노동자가 응답한 민주노총·금속노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4.3%가 근로자대표가 없다고 답했고, 23.2%는 근로자대표가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금속노조가 모은 상담 사례들을 보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로자대표가 있다고 해도 노동자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사, 부장 등이 한다거나, 한 사람이 10년 넘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근로자대표 제도를 강화하려 할까요

정부가 이런 근로자대표 제도를 손본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의 명분을 위해 근로자대표 제도를 악용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장시간 노동 과로를 막기 위해 정한 1주 최대 노동시간 한계선을 무너뜨려 '몰아치기 노동'을 시키려는 겁니다.

정부는 '일할 때 바짝 일하고, 쉴 때 푹 쉬는' 노동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노동, 장시간 노동, 단기간 급격한 과로가 노동자에게 이로울 리 없습니다.

현행법은 노동시간 유연화는 노동자 과반을 포괄하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대표와 반드시 서면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은 노동조합이 합니다

선출 절차, 임기, 권한 등 제도를 보완하면 근로자대표가 노동자의 의사를 대표해 민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조치 근절하지 못하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물며 근로자대표는 활동은커녕 사업주가 입맛대로 악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악용하기 쉬운 근로자대표제를 강화하려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제는 노동조건 악화를 막는 최후의 보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방법은 노동조합 가입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금속노조로 연락해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무료 노동 법률상담  1811-9509



모두가 함께해 모두가 행복한, '대한솔루션지회'

평택, 인천 찍고, 광주·경북·충남까지
“우리 모두 민주노조입니다”

1 대한솔루션? 뭐 하는 회사지?

대한솔루션은 자동차 소음과 진동을 막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완성차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 인천, 평택, 당진, 광주, 경산에 공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동차에 꼭 필요한 부품을 만듭니다.

2 대한솔루션에 금속노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섯 개 공장 모두와 사무직 노동자 620여 명이 금속노조 조합원입니다. 금속노조가 모든 공장에 있지 않았습니니다. 2006년 경기 포승공단 공장 노동자들이 처음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회사는 2008년부터 노조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140명 조합원이 33명까지 줄었습니다.



3 회사가 무슨 짓을 했나요?

회사는 비조합원과 조합원 만남을 감시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만 승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버티기를 넘어 비조합원을 설득해 금속노조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전국 공장을 돌며 금속노조를 함께 하자고 알렸습니다. 회사가 2018년 경북 경산공장에서 토요일 유급근무를 없애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였습니다. 분노한 경산공장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처럼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싸워서 상여금을 회복하고, 토요일 유급도 살리고, 계약직도 모두 정규직으로 바꿨습니다.

4 지금 금속노조 대한솔루션지회는 잘 지내나요?

모든 공장이 금속노조로 뿔뿔 뭉쳐 있어 회사가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올해는 다섯 개 공장 지회와 사무직이 공동으로 회사에 '생활임금'과 '생산물량 감소 시 고용안정 대응 방안'을 요구하고, 교섭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2018년 12월 금속노조 대구지부 동지들의 도움으로 금속노조 깃발을 세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구 금속노동자들의 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꼭 고용안정합의서를 쟁취하겠습니다.”

김희성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한솔루션지회장



금속노조, 공동휴게실·작업복세탁소 설치 요구



금속노조는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과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해 활동합니다.

작년 8월부터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실 설치 의무가 생겼습니다. 산업단지에 휴게실 설치가 어려운 작은 사업장이 많습니다. 금속노조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공동휴게실' 설치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2022년 전국 실태조사와 국회토론회를 하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공동휴게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 지역 토론회를 진행하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가족 안전 위해, 산단 작업복세탁소 설치해야

방청제, 세척제, 그리스, 분진에 씻가루까지...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 작업복을 집에서 빨자니 무척 찝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세면, 목욕, 세탁, 건조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합니다.

금속노조는 산업단지 작업복세탁소 설치를 요구했고, 2019년 경남, 2020년 광주에서 실제로 설치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사업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금속노조는 추가 설치, 이용료 감면, 노동자 요구 반영 창구 마련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공동식당 리모델링 요구,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통한 산업단지 지역 노동자 연대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주휴수당 삭감·공짜 노동·체불임금·법률·노조 가입 상담 ☎ 1811-9509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찰칵



금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꿀팁. <바지락>을 모바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과 다양한 정보. 지난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민주노총 노동상담페이지

전국 어디서나 무료 노동상담 전화 1811-9509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받고 싶다면? 찰칵!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삶과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 노동조합.....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 1811-9509

노동조합, 낯설고 어렵다고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뭉친 힘'으로, 사업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노동자를 위해 만든 단체이자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죠.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자연스럽게 갖는 많은 권리와 똑같은 권리 중 하나입니다.

왠지 멀고 낯설고 망설여지나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모여서 자기 일상을 살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는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현장에서 노동자의 힘을 키우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불합리한 현장을 바꾸고,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노동자라면 주저 말고 노크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도시가스 32.5%, 전기요금 22.5%, 지역 난방비 30.9% 등 작년보다 공공요금이 대폭 오르고, 대중교통비마저 오를 예정인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은커녕 외환 위기 때보다 더 낮게 오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으로 구성합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가 같아 공익위원의 역할과 의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익위원의 친정부 편향성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인사가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 이하다'라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회피하고 부추겼습니다. 민주노총·금속노조는 정부를 규탄하고,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 산업단지 최저임금 위반 감독·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금속노조에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있다면서요?



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를 상대로 임금 단체교섭을 벌여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확보하고, 금속산업 노동자라면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해왔습니다.

노조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왜 최저임금으로 살아야 합니까?

금속노조는 노조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금속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받도록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함께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꿉시다. 함께라면 가능해요.



당신의 삶과 일터를 바꾸는 일,
금속노조가 함께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노크하세요.



최저임금위반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갑질 / 산재사고

무료노동상담·노동조합 가입 문의  1811-9509